제 2 호
2019. 2. 7 (목)

KBS비즈니스 사보

| 발행인 | 김진석 사장
| 편집인 | 조현국 이사
| 취 재 | 이정민, 장선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비즈니스 | 전화 | (02)2600-8600

# 2019!!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연다

##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 경영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팀 구성, 지속가능 발전과 혁신방안 모색

김진석 사장은 1월 29일 본사 사장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을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의 해로 만들겠다는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모바일 기반의 업무용 홈페이지 개발과 창사 30주년 기념 미션,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비즈니스의 매출 목표는 621억 원으로 2018년 실적 대비 18억 원 늘어났고 수신기술차량 29대를 본사로부터 이관받기로 했다.
2019년 회사의 사업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혁신이 가장 눈에 띈다. 직급별 상·하한제 도입과 평가제도 개선,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및 유연성 강화, 보직자 승진 개선방안 등 노동조합과 합의나 협의가 필요한 쉽지 않은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내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최대한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계획이다.
회사는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어 온 예술과학원과 외부 위탁사업의 적자 구조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예술과학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한편, 외부 시설관리 수탁사업 운영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새 출발점에 선 2019년의 성패는 결국 비즈니스 구성원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경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내부 혁신과 활발한 소통, 뜨거운 열정이야말로 창사 30주년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18년 KBS비즈니스 주요 성과 베스트 5

-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600억 원 돌파
- 모바일 기반의 업무용 홈페이지 개발
- 스포츠월드 주차장 및 도로 포장
- 여자프로농구연맹과 업무협력 관계 구축
- 출차시스템 도입 및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지난 한 해 동안 KBS비즈니스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성과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성과는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6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비즈니스는 사업영역이 본사 시설관리 수탁사업과 체육관 사업이 주력이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움에도 1993년도 97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다.
디지털 플랫폼 TFT에서 추진한 업무용 홈페이지 개발은 그동안 아날로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체육사업과 대관사업의 고객관리, 마케팅, 홍보 기능을 디지털 세상의 초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포츠월드 주차장과 도로포장은 15년 만에 회사 전경을 일거에 바꾸어 놓았다. 하반기에 추진한 여자프로농구연맹과의 업무협력 관계 구축은 그동안 스포츠예술과학원이 추진한 기획사업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차 시스템 개선은 아레나 체육관에서 대규모 공연이 있을 때마다 북새통을 이뤄 고객들의 불만이던 문제점을 별도의 사전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출구를 이중으로 운영하여 해결했다.

##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며"

**| 김진석 사장 |**

2019년 새해 높은 분들의 신년사를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살기'
'흔들림 없는 평화, 고루 누리는 번영' 이렇더라고요. 새해 KBS 방송지표는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입니다. 평화, 고루, 함께, 이런 것들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화두들을 보면서 '아 그만큼 다들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는 어느 한해 어렵다지 않은 해가 있었느냐 이런 말도 하지만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지요? 우선 KBS 그룹 사정,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으면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상황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이고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유예 기간을 좀 늘렸지만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도전이면서 기회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크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노사가 함께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나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비즈니스 식구 여러분과 함께 정말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일들 ▲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까 ▲ 그렇다면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체제라든가 문화라든가에서 ▲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바꾸어하는 것 아닌가 ▲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바꿀 것인가 버릴 것인가 하는 고민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해 덕담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새해에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나 사람을 바라다볼 때 늘 웃는 낯을 하겠다." 피천득 선생이 '신춘'이라는 수필에서 쓰신 말입니다.
KBS 비즈니스 식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Interview

# 화제의 비즈니스인

KBS비즈니스는 창사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출범한 "창사 30주년 기념 프로젝트팀"이 비즈니스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면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며 어려운 시절 회사를 지탱해 온 스포츠사업부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비즈니스의 모습일 것이다.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두 인물, 강준식 프로젝트 팀장과 이성태 스포츠사업부 차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창립 30주년 프로젝트 TF 팀장
지역사업부 **강준식 부장**

### "이번 TF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올해는 KBS비즈니스가 창사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TF팀은 창사 30주년 관련해서 기념행사와 2030비전선포식, 세미나 그리고 회사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들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 우리가 지난 30년은 잘해왔지만, 경제도 안 좋고 본사 사정도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잘 해내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리 회사가 10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일류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TF팀의 핵심 과업이다.

### "워크숍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한화리조트 산정호수로 다녀왔다. 이번 TF팀을 총괄하시는 이사님과 팀원들 모두가 참석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했다. 아마 내 평생 회의는 이날 다 한 것 같은 기분이다.(웃음) 다들 준비들을 잘해 와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상당 부분 진척을 이뤄낼 수 있었다.

### "TF 팀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깨가 무겁다. 사실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털도 빠지고 걱정이 많다. 하지만 각 부서 부장님들이 추천해준 스마트한 팀원들이 있다. 팀원들과 함께 열정을 불살라 보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TF팀은 팀장인 저를 비롯한 이정민 팀장, 박정규 차장, 박철완 감독, 조성훈 감독, 황성하 사우까지 6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리에 과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TF팀에 참여한 우리 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협조 부탁드린다.

### 숙원 사업이 완료되었다. 소감이 어떠신지?

KBS스포츠월드 도로 포장 공사는 수년 전부터 고민해 온 스포츠사업부의 숙원사업이었다. 포장한 지 15년이나 지나 갈라짐은 기본이고 노면의 침하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추진할 엄두를 못 냈는데 임원분들의 결단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함께 고생하며 도움을 준 경영기획부, 기술사업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KBS스포츠월드 내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스포츠사업부 **이성태 차장**

###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나?

기존 경계석을 교체하고 야외 비포장구간을 포함하여 아스콘을 덧씌우는 작업과 주차선 도색작업, 골프장 옆 보행로 설치 그리고 위험 구간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 공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주차 편의에 중점을 두다보니 공사 구간의 분할과 휴일공사, 야간공사 등 공사 일정을 계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회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관행사도 피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날씨까지 춥다보니 공사 진척도가 더뎌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 공사 이후 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공사 완료 후 넓어진 주차선, 경사로에 설치된 보행로, 비포장구간의 말끔해진 환경 등 주차장 사용 및 출입의 편의 제공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표현해 주시는 회원들이 많아 기분이 좋다.

### 공사 이후 기대효과는?

골프장 개선공사에 이어 이번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KBS스포츠월드를 찾는 고객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회원들의 만족도와 매출 모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창사 30주년 기념 프로젝트팀 첫 워크숍 개최

### 창사 기념식과 주요 행사 추진 일정 논의

창사 30주년 기념 각종 행사와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구성된 「창사 30주년 프로젝트팀」(팀장 강준식 지역사업부장)이 지난 21일 첫 워크숍을 다녀왔다. 경기도 북부 산정호수가 있는 한화콘도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워크숍에는 조현국 이사를 비롯해 강준식 팀장과 이정민, 박정규, 조성훈, 박철완, 황성하 등 팀원 전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비전 선포식은 4월 3일 본사에서 거행하되 사원들이 참석하는 기념식은 5월 중순에 별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영방송 자회사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는 4월 3일 오후 3시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팀은 2월 말까지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서문, 수립배경, 향후 전략 등을 담은 초안을 작성한 뒤 차장, 지사장, 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통해 심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Issue

# 티켓팅 대란! 인터파크 2,500석 5분 만에 광속 매진
#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KBS부산 노래교실'

### 아이돌 뺨치는 티켓팅 대란

'KBS부산 노래교실' 이 지난해 12월 20일 인터파크 티켓 예매 랭킹 1위를 기록하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KBS부산 노래교실'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픈하였으며 5분 만에 1층 2,500석이 전석 매진되어 인기 아이돌 가수 뺨치는 티켓팅 대란으로 화제를 모았다. 'KBS부산 노래교실'엔 오전 수업을 듣기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다. 이번 온라인 예매는 선착순 현장 예매에 따른 자리다툼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수십 년간 쉬는 날도 없이 장사했던 엄마가 가게를 접고
가장 즐거운 일이 부산 노래교실 다니는 일이래요"
- by 노래교실 티켓팅 대란에 동참한 딸의 후기

### '노래교실계 대통령'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KBS부산 노래교실'은 '노래교실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가진 노래강사 임성환씨의 능수능란한 진행으로 회원들의 열띤 호응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40~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찾아와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고 기쁨을 공유하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다. 가수가 되려고 노래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쌓인 만큼 축적된 희로애락의 인생사를 노래를 통해 공유한다. 회원들의 요청사항으로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노래교실의 흥겨움을 더하기도 한다.

### 무대 뒤 숨은 조력자

"어머니들 건강 체조 준비되셨죠? 깍지 끼고 왼쪽으로 노래교실 사랑하는 만큼 기울여 주세요! 우와~ 어머니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KBS비즈니스 부산지사는 즐겁고 신명나는 노래교실을 위해 KBS부산방송총국과 임성환 강사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상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수강료 인상 (10,000원에서 1층 20,000원, 2층 15,000원으로 173% 가격 인상)으로 비즈니스 수익 증대까지 도모하겠다는 각오다.

Special

## 2019 KBS비즈니스 신입사원 인사말
# 당신이 있어 It's Possible!

2019년 1월, KBS비즈니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얼굴의 신입사원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지사 강석희, DMC사업소 임동현, 창원지사 강현규가 바로 이들이다. 풋풋함과 열정 넘치는 새내기들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부산지사 강석희**

대학에서 방송영상학을 전공하고 우연한 기회로 무대조명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립 공연장과 예술문화기관에 조명감독으로 소속되어 일하다 운이 좋아 부산 KBS홀 관리 담당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아직 회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좋은 공연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DMC사업소 임동현**

꿈에 그리던 KBS 비즈니스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사 후,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 적응도 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란 것도 많고 배울 점도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가며 KBS 건물의 시설을 정확히 알고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취득하여 KBS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창원지사 강현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 오늘의 KBS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신 여러 선배님께 존경의 마음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 KBS비즈니스인으로 제가 받은 소명 최대한 발휘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창원홀 대관업무 담당자로서 선배님들의 땀으로 이뤄낸 오늘의 KBS가 국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도록 겸손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Inside

# 수익사업 선봉… 수원지사를 찾다

## "수익사업 1억 3천 9백만 원, 시설관리도 스마트하게"

미국의 화가 척 클로스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영감? 영감은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것이죠. 우리 '프로들'은 그냥 아침에 작업실에 일하러 갑니다. 꾸준히 일하는 행동 자체에서 무엇인가가 자라나기를 기다립니다."고 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모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여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길어 올린 '아이디어'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지사가 있다. 신성장 모멘텀 창출로 비즈니스 경영에 기여하고 있는 수원지사를 찾았다. [편집자 주]

### 비즈니스 효자 노릇, 수익 '톡톡' 수원지사

드라마센터, 연수원, 오픈세트장, 편의시설로 구성된 수원지사는 대지면적 5만 평으로 지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KBS 방송시설을 관리한다. 이곳에서는 김훈 지사장과 19명의 시설 근무자를 비롯하여 환경, 주차, 견학, 4개의 송신소 등 총 63명의 사우가 근무하고 있다. 수원지사는 본연의 업무인 방송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업과 편의상가 시설관리로 1억 3천 9백만 원의 수익을 내며 비즈니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김훈 지사장, "사람이 우선입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목표로 수원지사를 이끄는 김훈 지사장은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 어떤 가치도 사람을 앞설 수 없다는 원칙으로 지난해 KBS 수원지사에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훈 지사장은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챙긴다. 이런 까닭에 환경 기능직 사우들의 바람은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근무 만족도가 높다.

▲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김훈 지사장

### 시설관리도 스마트하게

수원지사는 저비용 고효율의 에너지 관리와 자체 공사 진행으로 수선유지비 1억 1천만 원을 절감(2018년 기준)하여 KBS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면 사우는 고효율 조명 교체와 단열 강화 등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솔루션으로 전년 대비 전기에서만 2,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귀띔했다. 시설관리의 꽃 '영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훈 사우 역시 외주 용역을 맡기지 않고 보유한 기술력으로 바닥재 교체공사나 도장작업 자체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4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했다. 수원지사는 다른 지사에 비해 남다른 규모로 업무는 많지만,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방송시설 인프라를 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 왼쪽부터 황정호, 라윤주, 조성훈, 이나윤, 김영호 사우

▶ 왼쪽부터 차지현, 김민교, 신혜경 사우

### "우리가 버는 수익은 급여를 올립니다."

혁신적·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일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 수원지사는 지난해 주차사업 수익으로 9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편의시설 관리사업까지 포함하면 순수익 1억 3천 9백만 원에 해당한다. 수원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수탁시설인 KBS 수원지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인근 공공기관, 호텔, 기업 등에 정기주차 유치 및 주차 할인권 판매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주차사업을 수주하였다. 이 사업의 일등 공신인 조성훈 사우는 새로운 수익 아이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예민한(?) 주차정산기 덕분에 일복은 늘어 24시간 대기 상태로 회식 자리나 새벽 시간에도 회사로 뛰어갈 때가 많다고. 수원지사 조경업무로 나무를 사랑하며 나무와 함께 해왔다는 진지 청년 조성훈 사우는 요새 주차사업이 잘되어 기쁘지만, 나무와 교감할 시간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며 웃음을 짓는다.

### 시청자와 만나는 최전선

시청자와 만나는 최전선에 견학 담당 사우들이 있다. KBS 수원지사는 드라마 제작과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혜경 사우는 시청자의 방송, 국민의 방송 KBS가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방송의 또 다른 영역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남학생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차지현 사우는 견학 후 학생들이 보낸 수북한 편지를 보여준다. 편지에는 실제 방송 촬영장에 와서 특수 분장실이나 크로마키 기술 등 신기한 경험을 통해 즐거웠다는 이야기와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KBS 수원지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창의력을 더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숨을 불어넣으며 새 길을 열고 있었다. KBS비즈니스는 이들이 있어 감사하며 또 행복하다.